

사막에서 만나를 줌을 이스라엘 백성들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
1637~39, 캔버스에 유채, 149x200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입당송 | 시편 70(69), 2, 6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1독서 | 탈출 16, 2-4, 12-15

화답송 | 시편 78(77), 3과 4ㄱ, 23-24, 25와 54(◎ 24ㄴ 참조)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 에페 4, 17-20-24

복음환호송 | 마태 4, 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 요한 6, 24-35

영성체송 | 지혜 16, 20 참조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망각과 살아있는 빵



윤정한 바오로 신부 | 제17 강서지구장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탈출 16,3)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과 고기에 대한 그리움은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광야의 가혹한 환경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일을 해 주셨는지 잊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소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순례는 하느님께 대한 순수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광로에도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있듯, 망각과 하느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그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하느님 안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신약의 하느님 백성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따라온 군중들

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한 6,28)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어느새 자리하거나,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를 체험했던 기억을 망각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제대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신 성체를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믿음의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 세상의 거친 생각과 환경으로 지치고 힘겨워 주님을 멀리하고자 할 때,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제단으로 인도하소서.”



☞ 사막에서 만나를 줌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탈출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자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내용이며, 성체성사의 예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번 성화는 바로 탈출기의 그 만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저는 만나에서 시작하는 이번 주 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하느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나 그분께 감사드리며 삶을 살도록 해 줍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담당

모태 신자의 필수(?) 코스, 냉담



한젼마젼마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티스트

저는 '젼마'라는 세례명을 호적에도 등록해서 본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풋풋하고 창창하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일단 좀 물어가자는 마음으로 첫 단체 소개팅 이벤트에 제 인생 처음 '한○○' 가명 사용을 시도했는데... 아뿔사! 단체 소개팅에서 가명을 쓰고자 했던 친구들 모두에게 제 가명을 공유하고 숙지시켜야 했던 건만, 저 혼자만 가명을 파트너에게 발설했으니! 단체 소개팅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은 저를 당연히 '한젼마'로 불러대는 바람에,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코미디 사태가 발생! 그렇게 용감하게 가명을 질러댔다가 소개팅을 망치고 그냥 줄행랑을 쳐버렸던 인생 최대의 실수 이후, 저는 그나마의 가명 사용도 철회하였습니다. 평범하게 살기는 애초에 힘든 인생이 이름에서부터 주어진 것 같아요.

이 특이한 이름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어머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혹은 "아, 세례명이네요? 가톨릭 신자시군요?"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의 경우, 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는 이름을 세례명과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조건 세례명만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것만으로도 골수 가톨릭 집안임을 드러내는 기회이긴 했습니다. "어머 천주교 신자시죠? 세례명이죠? 하느님 믿으시나봐요?"

천주교 신자 맞고, 세례명 맞고, 다 맞는데... 근데 '하느님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왜 그렇게 숨이 턱 막히던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기에 모태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자신 있고 당당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 늘 고민해야 했고, 그래서 되려 오랜 냉담의 울타리로 들어가 끔찍 헤매야 했으며, 벗어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을 찾고야 말겠다.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방

황하던 지나긴 시간들이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순종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곁에 계신 하느님,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밀어내고 등잔 밑이 어두웠던 시절이었죠.

늘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무게, 방향, 방법으로 부르시는 그분은 정말 호되게 저를 당신 앞에 끌어다 놓으셨습니다. 또한 교만과 거만으로 무장하여 천근만근 치장이 화려했던 제 날개를 꺾어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추락한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비로소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느님을 만났고 그분을 향한 걸음마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내 성큼 성큼 걸으며 큰 날개짓을 시작했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그분을 찬양하는 일꾼이 된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 신자들에게 냉담은 필수(?) 코스라고 말하며 기다려 주면 어떨까요? 의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비교도 하면서 방황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 그 자체로 인정해 준다면, 냉담하고 있을 많은 모태 신앙 신자들도 돌아오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담도 부지런히 열심히! 반향과 방황도 뜨겁게! 하느님은 그 모습도 인정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8월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면서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세요!



대학로 동승동 골목길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 동안 이용하는 '비둘기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능이 필요한 발달(언어 발달, 배변 가리기 등)이 늦고, 일상생활 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돌봄이 필요

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 병변 및 지적 중복장애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1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이동하거나, 밥을 먹거나, 용변을 처리하기도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비둘기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와 돌봄은 필수입니다.

올해로 17년째 비둘기주간보호시설을 다니고 있는 선희 안젤라(가명)는 태어난 지 보름 만에 뇌수종을 앓고 여러 차례 대수술을 겪은 후 지적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중복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발급된 그녀의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검사의 대부분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며, 사회 성숙도는 3세 수준으로 기본적인 자조 능력에 극심한 지체를 보인다."며 "향후 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심한 안젤라는 특수학교 졸업 후, 비둘기주간보호시설에서 음악 및 미술치료, 동물매개치료, 문화 체험, 테마 여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젤라와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고, 활동 반경도 좁아서 체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부에 나가 간단한 산책과 운동, 여러 활동 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유의하고 있습니다만, 1 대 1 또는 2 대 1로 보조자의 손을 잡고 이동해야 하므로 성인 발달장애인 14명을 5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손이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은 비둘기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장애인 시설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비둘기주간보호시설은 2013년형 스타렉스를 후원받아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오전, 오후 송영 서비스를 위해 혼잡 구간을 운행하고, 정기적으로 주 1~3회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 일반 차량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고, 정비와 수리가 갈수록 잦아집니다. 무엇보다, 운행 중에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만, 비둘기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후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누군가처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새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그들의 불편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둘기주간보호시설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8월 3일~8월 3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비둘기주간보호시설'을 위해 씁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과 중간 결과 보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교회-마리아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단순한 전율이나 신비로운 각성일까요? 아니면 집단이 느끼는 공감 내지는 고행을 통해 찾은 내면의 초월을 말하는 걸까요? 거룩함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신부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현장은 거룩함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거룩함은 선별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거룩함이 개인의 수고나 지위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선물임을 뜻합니다. <교회현장> 2장 참조) 둘째, 거룩함은 한순간에 성취되지 않으며 긴 여정 안에서 지속됩니다. 이는 교회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길고 긴 여정의 끝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니깐요. <교회현장> 7장 참조)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성모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의 삶 자체가 거룩함의 모델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신비와 긴밀하게 연결시킵니다. <교회현장> 8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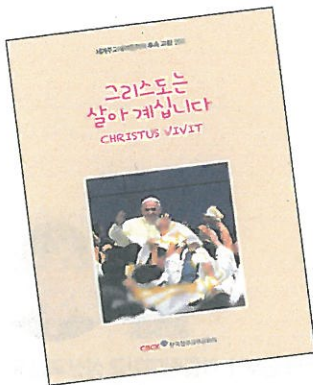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느 모로든 하늘에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어 내세에 완성될 교회의 표상이 되시고 그 시작이 되시는 것

처럼, 이 지상에서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서 빛나고 계신다.” <교회현장> 8장 68항)

거룩함의 원천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어머니를 통해 아드님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리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심으로써,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이자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당신 아들의 고난을 스스로의 고통으로 몸소 감내하시어 인간들의 곤경과 어려움을 실존의 신비로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아드님 영광에 결합하시며 인간 삶의 존귀함도 알려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도록 협력하셨고, 참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삶의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성모님은 신앙인들의 구원 여정 안에서 거룩함의 인도자이십니다.

종교적 심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어느 종교적인 감정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 소명을 간직한 교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이며, 모델이신 성모님을 통해 그 본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헌신과 요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서, 거룩함의 소명을 이어 나가야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루카 1,38)

젊은 성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성모님은 어떤 젊음의 시기를 보내셨는지 만나봅시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장(43-48항)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손민제 제노비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서 ‘믿음’이 자주 언급됩니다. 회당장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라고, 더러운 영이 든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르 9,23)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는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 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탄생 예고 이야기에서는 천사도 성모님도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모님도 인간이셨기에, 충분히 의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저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담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이미 성모님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분이셨기에 ‘예?’ 대신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동행하실 수 있었던 원천은 성모님의 ‘완전한 믿음’이라 생각해 봅시다. 미사 때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며 고백하지만, 의심 많고 부족한 저이기에 성모님께 전구를 청해봅시다.



최유진 스텔라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묵주기도를 시작해서 환희의 신비 3단에 이를 때면 저는 늘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성모님께서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이며,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을지. 아기 예수님께 주어진 인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막 태어난 아이를 받아 안았을 때 느끼셨을 성모님의 벅차오름을 저는 감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성모님께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도 사랑하셨겠지만, 자신의 품에 안기던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님 또한 무척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원숙하신 성모님과 그 옛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을 안고 계셨던 젊은 여인 성모님 사이의 시간을 떠올리면 괜스레 마음이 아파집니다.

평범한 우리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지닌 젊은 여인이셨던 성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용기와 십자가 아래 서 있을 굳건함을 갖추신 성모님. 그 사이 마냥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아들의 때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준비하셨던 분. 성모님은 제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북돋아 주셨고 마음으로 지켜 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지만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의 힘을 보여 주신 분, 지지하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45항)

공동체적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흔히들 실존적이며 생리적인 관점 때문에 인간을 독립된 개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넘어 보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개체적 측면 이상으로 공동체적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인격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다움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다른 인격체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그렇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인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위격적 관계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다른 인격과 맺는 관계 안에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그의 본질이 공동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흔히 사회적이거나 공동체적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가정과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 마을은 물론 넓게는 국가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본성이 표현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화, 과학과 예술, 학문 역시 이러한 본성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이렇게 형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인간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공동체적 본성은 인격적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공동체는 그 집단의 외형적 모습이나 그 체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맺는 인격적 관계의 총합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다움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는 뜻입

니다. 관계맺음 안에서 인간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특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본성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적 크기가 결정됩니다. 내가 만든 공동체의 크기가 바로 나 자신의 크기입니다. 그 공동체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나의 인격입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덕목인 공동선이 중요해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결코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상호성 안에 자리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존적이며 개체적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동체적 특성에 담긴 양면성이 자리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따로 존재하는 각기의 요소가 아니라 어우러져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본성을 만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이 만드는 공동체에는 흠어짐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근본적 모순은 이런 양면성 때문에 생깁니다. 공동체적 존재이기에 한 데 모일 수밖에 없지만 각자의 실존적 본성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우리 본성에는 '따로, 그러나 함께'라는 특성이 작용합니다.

이런 특성을 철학적으로 '흠어지는 공동체'라는, 얼핏 보기에는, 모순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격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유지하고 달성함으로써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뜻이지요. 공동체적 존재이기에 우리가 전체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오히려 그 특성은 각기 인격의 고유함과 특성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잘 어우르고 통합하면서, 그 갈등과 모순을 조절하는 데서 우리 인격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4년 7월 9일)

■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총무로 황성호 미카엘 신부(광주대교구, 2004년 사제 수품)를 재임명함.

■ '시노드를 위한 한국 교회 본당 사제 모임'을 2024년 9월 2일(월)~4일(수) 왜관 성 베네딕도 문화영상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함.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준비를 위한 '본당 사제 국제 모임' [2024년 4월 28일(주일)~5월 2일(목), 로마] 참석자들에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동료 본당 사제들과 함께 시노달리타스의 선교사가 되라고 초대하심. 또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총장 마리오 그레크 추기경은 지역 교회에서 적어도 두 차례의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주교회의 사무처는 로마에서 개최된 '본당 사제 국제 모임'에 참석하였던 한국 대표 사제 6명,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와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시노드를 위한 한국 교회 본당 사제 모임'을 기획함. 이 모

임에는 교구별로 사제 수품 15년 차 이하(1명), 15~25년 차(1명), 25년 차 이상(1명), 교구 사무처장 또는 사목국장(1명) 가운데서 3명씩 참석하게 됨.

■ 한국 주교단의 2024년 사도좌 정기방문(2024년 9월 16~21일)의 주요 일정을 확인함. 이번 사도좌 정기방문은 2015년 방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직 주교 23명이 참석하고, 교황님 알현, 교황청 국무원, 복음화부 등 교황청 부서 방문, 성 베드로 대성전 미사, 성 바오로 대성전 미사, 로마 한인 성당 미사,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관 만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7년 8월 9일 진모덕 야고보 신부(59세)
- 1987년 8월 9일 이근영 사도 요한 신부(33세)
- 1988년 8월 10일 박희봉 이시도로 신부(64세)
- 2021년 8월 5일 황인국 마태오 몬시뇰(86세)

교구청 알림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8월19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윤진상 프란치스코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함께하는 생명살림강좌

주제: 밤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우리농 활동가 및 회원
내용: 초기 교회 선교사의 편지와 기록으로 보는 밤상이야기 외 음식문화 2강좌, 미사
때: 8월10일(토) 10시~17시(중식 미제공)
곳: 가톨릭회관 205-3호(명동)
회비: 3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 접수: 8월7일(수)까지 마감
문의: 02)727-2275, 7(wm.or.kr)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4년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7월29일(월)~8월25일(일)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2일~12월9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2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 2) 청년(요한복음), 직장인(임문) 성서못자리
때: 8월28일~12월11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6주 강의)
개강미사: 8월28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4권 동부 화요반)
수강기간: 9월3일~12월10일 매주(화) 20시~21시(미주 동부 시간 기준, 15주 강의)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2024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 회비: 10만원
대상: 만 20~39세 미혼 남녀(2024년 9월 피정일 기준)
때: 9월7일(토) 13시30분~9월8일(일) 16시(1박 2일)
곳: 콘텐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함산구 한남대로 90) / 신청: www.forlife.or.kr(생명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 QR코드로 신청)
신청마감: 8월21일(수) /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회비: 10만원
때: 9월4일부터 매주(수) 오전 10시(10주 과정)
곳: 노동사목회관(보문동) / 접수: 8월30일(금)까지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참조

주교좌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기간: 8월18일(일)~9월8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준비 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9월22일~10월20일 매주(일) 13시30분~15시30분, 코스트홀(5주간 / 대면수업)
견진성사: 10월27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74-1784(내선 8) 성당사무실

순교자현양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접수 안내

-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3회)
때: 매주 첫째주(화) 8월4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순교성지
-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8월17일(토), 8월18일(일), 8월27일(화)
곳: 신리성지, 합덕성당, 여사울성지, 황무실성지
신청: 8월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4 신규약 성경통독

내용: 신규약 성경 전체 / 강역: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8월5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5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때: 9월5일~12월5일 매주(목) 14시~17시(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 온라인 교육 / 심화 교육(교정사목센터)
마감: 8월30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 02)921-5093, 010-3732-5093

민족화해위원회

- 1) '평화의 바람 기행 27' 참가자 모집
내용: 평화교육, 점점지역 순례
대상: 누구나 40명(9km 도보(산행) 가능함)
때, 곳: 9월28일(토)~29일(일) 1박2일, 파주-연천-철원
회비: 5만원 / 문의: 02)753-08151
- 2) 143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8월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돋판': 평양교구 성천 본당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은희 개인전: 1전시실
박강원 개인전: 2전시실
2024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박미정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7일(수)~15일(목)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가톨릭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8월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가톨릭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 · 성악(남·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성령기도회
강사: 봉하령 신부(작은 예수 수도회) / 010-6290-1639
때, 곳: 8월10일(토) 10시~12시, 양원성당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8월11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학교 피정
대상: 가톨릭 신자(예비 신자 가능)
때, 곳: 8월13일~18일, 수원 양지 영성교육원
문의(접수): 010-5531-1008 또는 ICPE 카톡 플친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이창진 신부(전 삼성산지도) / 문의: 010-4444-1264
때, 곳: 8월21일(수) 12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8월16일(금)~19일(월)·9월20일(금)~23일(월)
10월18일(금)~21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서울ME주말 접수
더 좋은 부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ME주
말에 초대합니다 / 접수: seoulme.or.kr
때: 8월9일~11일·8월23일~25일·9월27일~29일·10
월25일~27일·11월22일~24일·12월13일~15일
곳: ME만남의 집(동촌동) / 문의: 010-8334-4710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8월6일 이재을 신부 8월13일 김기화 신부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9월6일~7일, 9월21일~22일, 11월29일~30일
홍성남 신부 남규수 순례 10월28일~11월1일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미사·안수 / 문의: 010-7393-7924
때, 곳: 매주(월) 14시, 서초동성당 대전관 1층
8월12일 봉하령 신부 8월19일 정재건 신부
8월26일 강요셉 신부 9월2일 백운철 신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8월9일(금)~12일(월)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8월15일(목)~17일(토)
성경 원독 8월23일(금)~31일(토), 9월27일(금)~10월5일(토)

2024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곳: 9월6일(금)~8일(일)·10월4일(금)~6일
(일)·11월1일(금)~3일(일), 김포-파주-연천-김화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 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자연순례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0월2일~4일·10월25일~27일·11월1일~3일
·11월15일~17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
센터-주최) /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서울대교구 청년성령피정(청년성령새싹사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43.1)
때, 곳: 9월7일(토) 10시30분~19시·9월8일(일) 10시
30분~18시(무박 2일), 천주교 성령새싹봉사회관
회비: 6만원 / 문의: 카톡 플러스 친구 '루하', 인
스타 DM @ruah.fiat, 010-7445-6929 팀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9월2일~4일·9월7일~9일·9월21일~23일·9월
26일~28일·10월14일~16일·10월19일~21일·10월
23일~25일·11월1일~3일, 추자도 포함 9월11일
~14일·10월5일~8일·10월27일~30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하부내포 도보순례 / 문의: 010-3807-1784

회비: 국내 1일 6만원·일본 1인 147만원
국내 9월1일(일), 완장포구(도보 10km)-서지골-삼타-
도양골·10월19일(토), 신시도(새만금)-산막골(도보
2시간)-작은재 / 출발: 7시, 가톨릭회관(병동) 후문
일본 11월24일~28일(3박4일), 나가사키 순교성지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우도 해변 포함	8월14일~17일, 8월21일~23일
생태순례	9월1일~3일, 9월20일~22일, 9월28일~30일
추자도포함	9월7일~10일, 10월7일~10일, 11월3일~6일,
성지순례	11월18일~21일, 11월24일~27일, 12월1일~4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혁 피정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8월16일(금)~18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9월20일(금)~22일(일) 남궁민 신부(원주교구)
10월18일(금)~20일(일) 홍성남 신부(서울대교구)
11월15일(금)~17일(일) 허규(서울대교구)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9월13일 10시~15시30분
다네이명성수련 피정(대침묵)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망
단체 피정(자체·위탁)	개인 피정 가능

수험생을 위한 12주 철야기도회

8월 토요 낮 치유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
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수험생을 위한 12주 철야기도회

때: 8월6일부터 매주(화) 12주간 21시30분~다음
날 4시(미사·안수 있음)

2) 8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8월10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교육

성물·묵주 조각 기초부터 전문까지(가톨릭묵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홈바리스타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템나눔악원(주최, 신촌)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때: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목) 11시~13시

회비: 12만원씩 3회

문의: 010-4598-6912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지도)

물이솟는샘 '예닮영성' 교육 개강

II 우리 하느님(12화): 9월2일(월) 10시30분, 교구청 501호
홍성남 신부 / 주1회 12주·1시간30분 교육
문의(접수): 02)472-3217 가톨릭영성아카데미

작은형제회 청년성서모임 가을학기 모집

대상: 창세기~사도행전 봉사자·그룹원
모집: 7월22일~8월14일 / 문의: 010-9967-1590
접수: 네이버카페·인스타 '정동청년성서모임'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8월29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영성센터 A동 201호 / 지도: 전호영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연극, 원어민영
어회화, 토론·글쓰기, 사진, 바리스타 등
봉사자 모집: 검정고시(전과목), 수능학습지도 가
능한 분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성 프란치스코 오상 800주년 기념 특강

때, 곳: 9월11일(수) 10시~12시·13시30분~15시30분
·12시10분(미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2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
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 프란치스코의 성흔과 라 베르나 기경호 신부

명화 속 성 프란치스코의 성흔 이종환 신부·이동욱 신부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가을학기 회원 모집

곳: 인사동 / 다도와 전통 예절 교육
문의: 010-8912-2640, 010-3226-6078

목요일 9월5일부터 13주간 10시30분~12시30분

금요일 9월6일부터 13주간 10시30분~12시30분

금요일 9월6일부터 13주간 14시~16시

서울성모병원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계좌: 우리은행 1005-101-712022 (학)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때, 곳: 8월27일(화)~28일(수) 9시~17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02)2258-1901, 1904
 접수: 7월29일~8월9일(전화 접수 후 입금) / 회비: 5만원

도림동교육센터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오푸스테이)

대상: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dorimdongcenter.org
 내용: 가을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 개인방+개인화장실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오푸스테이
 문의: 010-2554-1507(dorimdongcenter@gmail.com)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온라인 병행)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9월3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곳: 한국CLC 강의실·온라인 Zoom
 8월29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2024년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하반기 열림특강

주제: 루카복음서 / 대상: 가톨릭청년 신자
 강의: 이주형 신부(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때, 곳: 9월6일~10월25일 매주(금) 19시30분~21시 (90분 강의), 영성센터(명동) / 문의(접수): 02)764-6452
 회비: 5만원 / 8월29일(목)까지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http://www.godislove.or.kr) 참조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

9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최화선 박사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송봉모 신부
(수)	죽음수업	홍기영 교수
(수)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목)	구약성경 아가페미·구약성경의 기초	주원준 박사
(목)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박상훈 신부
(금)	삶의 의미·철학적 도박, 신학적 리액션	김민철 신부

11지구 성령 안의 성장세미나

때, 곳: 19시30분~22시, 역삼동성당 / 회비: 3만원(교재 포함)
 문의(문자 접수): 010-4667-3792, 010-8694-3782

9월5일	소개·기도생활(미사)	홍성학·김영훈 신부
9월13일	말씀·성사생활	김일영 신부
9월20일	은사 심화과정 1	이창진 신부
9월27일	은사 심화과정 2·교회와 선교	김성대 신부
10월4일	성령안수(미사)	김도영 신부 외 3명
10월11일	윤리·수덕생활	양창우 신부
10월18일	은혜의 밤(미사)	박용일 신부 외 3명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 010-2252-2974 강신옥
 때, 곳: (금) 1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분 거리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둘째주(일) 영세 식 봉헌 / 대상: 30~50대 여성 교우
 때: 8월25일 12시 / 문의: 010-6303-1365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봉 담담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8월22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8월10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강사: 김정준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8월5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곡개성지 내)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8월7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별미사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B3)
 1) 성모승천대축일 특별미사
 때: 8월15일(목) 15시 / 집전: 서소문 성지 사제단
 2) 시복 10주년 특별미사
 때: 8월16일(금) 11시 / 집전: 염수정 추기경

안내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익산 성글라라스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계)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예수마음선교수녀회 기도 장소 대관

곳: 경기도 여주 신단2길 109-13(여주 전철역-자
 가용 10분) / 대상: 개인 및 소그룹(6명 이내)
 구성: 경당, 개인침실 6개, 거실 및 주방
 기타: 식사(직접 취사) / 문의: 031)885-5015

2024년 가톨릭성가대 코랄콘서트 예선 접수

대상: 전국 성당성가대 / 8월12일까지 접수
 예선: 가톨릭 성가대 1곡 음원 접수 / 본선: 11월2일
 문의(접수): 010-5245-2848 심준보 / 주최: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지곶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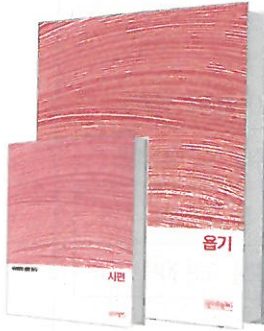
상담: 대인관계, 부부, 사별, 우울, 영상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제5회 요한 바오로 2세 심포지엄(햇살사목센터

30주년 기념) / 문의: 02)744-0840
 주제: 한국 교회 안에서 사목 센터로서의 의의와 도전
 때: 8월10일(토) 13시~16시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혜화동)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수녀원	010-5604-1862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전화 상담 후 결정	전화 상담 후 결정	010-3355-4997,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욥기
축복받은 성경 읽기: 시편가톨릭성서모임 엮음 | 성서와함께
욥기 76쪽 · 시편 92쪽 | 각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시리즈의 욥기, 시편 책이 출시됐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마리아 막달레나

제니퍼 리스틴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24쪽 | 2만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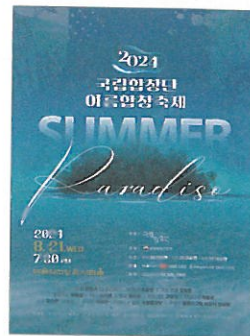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마리아 막달레나가 살았던 시대의 생활상에서부터 그녀의 삶과 활동에 관해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가설, 예술 작품에 나타난 강력하고 신비로운 여성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신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엮음
성서와함께 | 76쪽 | 8천원
문의: 02)822-0125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이콘은 '기적의 성모'요 '길의 인도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공경을 받아 왔다. 이 책은 성모님을 사랑 하는 이, 성모님의 전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성모님이 친히 그 아드님께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이를 향한 성모님의 초대이다.



축제

2024 국립합창단
여름합창축제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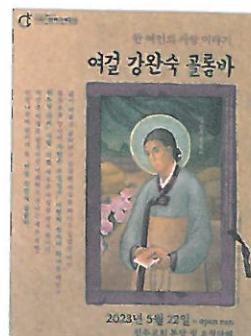
2024 국립합창단 여름합창축제가 오는 8월 21일(수) · 22일(목)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활기찬 자연의 여름과 낭만, 그 속에 품은 인생의 아름다움을 합창으로 담아내며, 국립합창단이 선사하는 특별한 합창 축제 '써머 파라디소'로 영화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음악회

서울시합창단
'한여름의 메시아'입장권: 전석 5만원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40% 할인

'메시아' 드림팀 소프라노 허진아, 메조소프라노 김세린, 테너 존노, 바리톤 성승욱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데이비드 이가 함께하는 한여름 최고의 문화바탕스, 2024 <한여름의 메시아>가 8월 8일(목)~9일(금)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공연된다.



음악극

여걸 강완숙 골롬바

공연안내: 8월 15일(목), 대전교구 합덕성당 · 8월 16일(금), 합덕성당 · 9월 4일(수), 수원교구 상현동성당 · 9월 7일(토), 도림동성당 · 9월 28일(토), 의정부교구 덕정동성당 9월 29일(주일), 수원교구 분당구미동성당
문의: 010-3373-1654 방은미 // 전석 초대(무료 입장)
공연 일정은 홈페이지(<http://golomba.modoo.at>) 참조자세한 내용
큐알(QR) 스캔

삶이 외롭고 공허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던 한 여인이 천주교를 만나 '하느님 나라, 사랑,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한 여인을 여걸로 변하게 만든 명쾌하고 신나는 예수님 사랑이 관객들의 신앙에도 단비가 되어 줄 것이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기도학교 모집

묵상기도와 관상적인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과 태도를 익히며
내적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드립니다.
대상 : 고요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원하시는 분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 교리실 304호
첫모임 : 8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수강료 : 50,000원
신청 : ~ 8월 25일(주일)까지
문의 : 김이수 로사리아 수녀 (010-9817-7391)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8월 15일(목)	오전 7시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 주일학교 미사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참례 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미사

일시 : 8월 6일(화) 오전 10시
매일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8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연성회(70대) 정기모임

일시 : 8월 8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문의 :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일시 : 8월 9일(금)~11(주일) / 예담숲
문의 : 로사 교감 (010-7274-9443)
* 여름캠프 기간인 8월 10일(토)은 오후 3시
어린이미사가 없습니다.

◎ 청년 여름캠프

일시 : 8월 23일(금)~25(주일)
장소 : 계성푸른누리수련원 (가평)
신청 : ~8월 18일(주일)까지
회비 : 70,000원
* 대학생은 50,000원(학부생 한정)
문의 : 요셉 캠프장 (010-2039-9636)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6일(화) ~ 11월 14일(목)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사도요한 신부님 (010-3854-1317)
*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배움터바로 70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청년, 냉담자, 예비자)
모집 : 8월 4일(주일) ~ 9월 22일(주일)
여는마당 : 9월 22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성령기도회 회원 모집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205호
문의 : 데레사 회장 (010-7305-6804)

◎ 성소후원회 회원 모집

사제와 수도자,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와
영적, 물질적으로 후원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 모니카 회장 (010-2271-0565)

◎ 교리실 사용 후 냉방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7. 2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10	761 (37.9%)	728 (36.2%)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7월 22일~28일)

익명	오만원	한주연	오만원
곽선모	일만원	익명	삼십육만원
변경섭	이십만원	2024첫영성체반	사만원
김희진	오만원	박옥남	오만원
함영동	일만원	한인경	일십만원
이영주	삼십만원	익명	일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7주일)

교무금 10,772,000원
주일헌금 5,560,000원

입당	33	봉헌	217,213,216	성체	167,180,176	파견	4
----	----	----	-------------	----	-------------	----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